

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10. 30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배지훈 의원 외 6인(이성순, 이영빈, 김인호, 박종길, 박정환, 김태형)
- 발의일자: 2020. 10. 15.
- 회부일자: 2020. 10. 16.
- 상정 및 의결: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(2020. 10. 30.)

2. 제정이유

- 최근 신·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,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·확산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, 의료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
(안 제3조~안 제5조)
- 나.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교육실시 등
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다. 비밀누설의 금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, 안 제9조)
- 라. 소독의무 및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
(안 제10조, 안 제11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,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, 안 제13조)

4. 관계법령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: 박성우)

- 현행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상위법령”)에 따라 중앙 정부 및 광역·기초 지방자치단체는 “국민 건강에 위해(危害)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”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.
 - 현재(2020년 10월 20일), 대구광역시를 포함해 대구시 8개 자치구 중 5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·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114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조례를 운영 중.
- 본 조례안은 위 (상위)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차원의 감염병 관리 대책과 별개로 달서구 주민들에게 달서구 차원의 별도 추가 대책(지원)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- 최근 신·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,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입·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는 물론 달서구 차원에서도 마련하고자 하는 점. 다음으로 조례안 개별 조문들 역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 바,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 - 다만 상위법령 제64조(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가 부담할 경비), 제66조(시·도가 보조할 경비)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(시·도의 보조 비율)에 따라 달서구가 법정 부담해야 할 경비부담에 더해, 동 조례 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가 부담할 경비가 새로이 발생하는 바,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토론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